

해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4강. 해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학습목표]

1. 해외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교육 여건에서 의미 있게 참고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2. 해외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사례 중 자신의 교과 혹은 학교에서 적용할 만한 부분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미국, 영국, 호주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업 사례와 시사점 생각하기

1) 미국사례

1920년대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했을 정도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산업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거대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고 왜곡이 없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016 대통령 선거 이후 흔히 가짜 뉴스라고 하는 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을 마련하는 주정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도 중 미국 포인터연구소(Poynter Institute)에서 진행한 미디어와이즈(MediaWise)라고 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학생들이 사실과 허위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현장학습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수평 읽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흔히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어떤 웹사이트를 찾게 되면 우리는 그 웹사이트가 정말 웹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무한 신뢰에 대해서 한번 짚 생각 해보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특정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포털 사이트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웹사이트의 내부 내용을 살펴 보면서 해당 웹사이트가 신뢰할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수평 읽기는 말 그대로 해당 웹사이트와 그 웹사이트를 언급하거나 혹은 평가하고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인터넷의 여러 창위에 올려 놓고 나란히 사실 여부를 따져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웹사이트가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단지 웹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쉽게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영국사례

민주시민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고 이 민주시민교육을 수업 현장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제대로 읽어내는 법을 통해서 능동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또한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3C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즉 비판적 분석능력(Critical), 창조적인 제작능력 (Creative), 문화적인 이해능력(Cultural)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려는 것이 영국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영국 수업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은 이민자가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흔한 런던의 한 학교를 방문하면 재학생 전체의 모국어 종류가 50개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수업 사례는 이민자를 둘러싼 갈등인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보도를 학생들이 직접 분석해 보고 사건 관련자들과 인터뷰를 거쳐서 그에 관한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직접 만들어보는 꽤 호흡이 긴 수업 사례입니다. 제가 이 수업 사례를 보면서 공감했던 것은요 수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학생들이 미디어를 실제로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3) 호주사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고자 하는 호주에서는 2018년 공영방송 ABC 주최로 미디어리터러시 주간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뉴스 소비 습관 일지입니다. 지금 자료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소비하고 그 이야기는 어디서 어떻게 찾으며 어떤 뉴스가 더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적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뉴스 소비 습관을 바꿔 볼 수 있는 몇 가지 시도를 하게 하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게 합니다. 뉴스 다이어트 챌린지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늘 새로운 식이요법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자신의 뉴스 소비 습관을 돌아 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2. 프랑스 미디어리터러시 수업 사례와 시사점 생각하기

프랑스는 매년 3월, 전국적으로 학교에 언론 주간이 있을 정도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저는 유럽의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젝트 기반의 국제수업교류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 파트너 학교의 선생님 주관으로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한 중학교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논쟁이 될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해당 내용을 어디서 읽었는지 출처를 밝히고 그 정보가 사실 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기사 혹은 뉴스도 소개하고 이에 관해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흔히 유튜브나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다른 하나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을 가져와서 해당 신문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무가치도 있을 수 있고 풍자지나 스포츠 신문도 있고 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문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학생들은 다른 종류의 신문들의 전체적인 인상이나 구성, 광고의 수 그리고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창간일 그리고 신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라디오라고 하는 미디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다소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드는 매체이기는 합니다만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내용은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어떤 수업 사례 혹은 프로그램 사례를 보면 흔히 어떤 학교급에서 적용이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과목에서 이런 수업이 가능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한 학교급 과목 간의 경계를 조금은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디어를 생산하는 경험은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매우 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영상 제작이나 카드 뉴스 제작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능숙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신문 제작이나 뉴스, 영상 제작 등은 학교 현장에서 모둠별 과정중심 평가 혹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한 일종의 산출물로 학생들이 제작한 경험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곧 미디어리터러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의 미디어 생산물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 프랑스 학생들의 영어 수업에서 진행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지금까지 저희 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음성파일로 보내왔고요 저는 저의 답을 녹음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아마도 인터뷰 방식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선생님께서는 이메일을 전달해 주시는 역할만 하신거고요. 프랑스의 미디어 제작 수업에서 제가 조금 더 인상 깊었던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미디어 제작 자체가 평가 방법의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제를 미리 정하고 학생들은 해당 미디어를 만들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시기의 역사 신문이나, 기후 변화 관련 카드뉴스



제작 이런 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생산해 본다는 것도 참 중요한 경험이지만 미디어의 형태를 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갈 주제를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해 보도록 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작년에 프랑스 선생님과 함께 했던 미디어 프로젝트의 일부를 소개 하려고 합니다. 수업의 시작은 미디어에 관한 다양한 어휘였습니다. 국제수업교류였기 때문에 영어로 된 미디어 관련 어휘를 한국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다양한 유럽의 어휘로 각자 소개하고 해당 어휘를 어떻게 이미지로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은요 미디어 관련 어휘 중에서 fourth estate (언론을 가리키는 제4 권력이라는 표현) 이나 investigative journalist(탐사 저널리스트)와 같은 표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학교의 언론 주간은 보통 3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간에는 집중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기자들이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미디어와 관련된 수업을 여러 과목에서 하시게 되는데요, 많이 하는 활동 중의 하나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의 내용과 사진을 비교해 보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같은 주제지만 기자의 관점에 따라서 기사의 내용과 사진의 크기 혹은 어떤 사진을 선택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하면서 기사화된 모든 것이 꼭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 어떻신가요? 사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시작은 어쩌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모두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렌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가능하고 그중에서 정말 사실인 것을 가리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 핀란드 미디어리터러시 수업 사례와 시사점 생각하기

핀란드는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꼭 한번은 언급되는 나라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핀란드 교육과정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7가지 교과 공통 역량이 있는데 이중에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다중 리터러시(multiliteracy)와 ICT 역량(ICT competency)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에서는 평등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의 가치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도 녹아있습니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접근 할 때도 핀란드에 살고있는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목표는 진정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고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가 매우 중요한 시민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업 사례를 몇 가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상업적 정보와 뉴스를 구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표현의 자유와 보도 원칙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 봅니다. 저널리스트의 보도 원칙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에 대해서 짝과 함께 토론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며 어떤 사안을 보도할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모둠별로 기사를 선택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문사별 보도 관점의 차이를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원칙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언론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미디어에 대한 "읽" 즉 리터러시를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수업을 우리가 정말 교실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수업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권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인종과 종교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 교실에서 잘 다루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작은 시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시간이라면 외국의 뉴스 사례를 가져와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조금은 부담이 덜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과거에 보도된 사건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활용해서 과거의 다양한 매체에서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한번 짚 시도해 보신다면 학생들이 오늘의 기사를 접할 때도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과거의 기사 모두가 검색가능한 곳이 있죠? 빅카인즈(BIG KINDS)에 접속해서 기사를 검색하신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와 유사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수업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수업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모둠별



로 허브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각각 다양한 역할을 맡아서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나 이주 학생도 참여해서 소외 받지 않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허브를 심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경험하고 이를 생태교육과 연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자신의 느낌, 키웠던 허브의 맛과 향, 동료와의 협동 과정 등 기록하고 이를 포스터라는 미디어로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많이 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한 모습과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